

身體 形態에서의 個體性 觀察에 대한 文獻 研究

김경철^{1)*} · 김재필¹⁾ · 이정원²⁾

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2) 보건의료대학 의료경영학과

Abstract

Study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by the body shape

Gyeong Cheol Kim^{1)*} · Jae Phil Kim¹⁾ · Jeong Won Lee²⁾

1)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2) Dept. of Health Care Management, College of Nursing & Health,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Objectives

For the excellent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we study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by the inspection of body shape.

Methods

To the subject of diagnosis special books and diagnostics textbook of korean medicine, we arrang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by the four methods of diagnosis.

Result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analyzed by the inspection of the body shape in the 『Huangdineijing 黃帝內經』 and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was observed stereotyped. The inspection of the body shape means to diagnose the patient by examining the individual phys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he body depends on visceral essence to nourish, while the functions of the viscera and the conditions of visceral essence may be reflected by the body.

The inspection of individual physical strength and weakness may enable one to know the functions of the viscera and the conditions of ki(氣) and blood. And also the inspection of local regions is used to closely examine some regional areas to obtain necessary clinical data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Conclusion

As the result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by the inspection of body shape is very important item of the four methods of diagnosis(四診) and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辨證). And therefore the process on four methods of diagnosis and differentiation of syndromesis is necessary to divide the sign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and the signs of disease.

Key Words

body shap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 교신저자 : 김경철 / 소속 : 부산시 진구 양정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51-850-8649 / E-mail : kimkc@deu.ac.kr

투고일 : 2014년 7월 18일 / 수정일 : 2014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8월 21일

I. 서론

身體 形態에 대한 觀察은 望診의 核心으로써, 辨證施治論의 주축이 되는 個體生理, 個體病理 과학의 전통적인 方法論이다¹⁾. 身體 形態에 대한 觀察은 인간을 아는 知人法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시되고 있는 診斷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研究되고 있다²⁾. 최근 이에 대한 객관적인 診斷 연구가 비록 기초적이지만³⁾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⁴⁾, 앞으로 개인 맞춤형 醫療와 慢性疾患의 豫防을 감안하여 더욱 중요하게 研究되어야 할 分野이다.

한의학은 본래 個體性的의 體質에 관련되는 證候體系에 의하여 치료하는 體質醫學이다⁵⁾.尹은 『東醫生理學의 方法論研究』緒言에서⁶⁾, 한의학은 수립 될 때부터 個體生理와 個體病理를 다루어 왔으며, 辨證論에서 病證 발생을 個人 特性 要因을 말하는 個體성과 질병 발생 因子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四診, 八綱, 辨證에서 個體 特性 要因을 관찰하면서, 診斷과 治療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四診에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個體性 要因에 대한 내용과 질병 因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明知其人하고 明知其證⁷⁾과 같이, 病證 診察과 함께 人間 個體性을 診察하는 知人法을 더불어 주장하는 辨證施治論에서 人間 個體性은 病證을 결정하는 가장 核心的인 要因으로서, 病因, 病理的인 轉化, 病證 발현, 治療와 事後 관리, 養生과 豫防에서 重要性이 認定되고 있다⁸⁾. 그러나 아직까지 診斷 敎育과 臨床에서 個體性 要因과 疾病的인 因子를 구분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四診法에서 病證 구성의 疾病的인 因子와 人間 個體性 要因을 구분하여 研究 分析한 資料도 不足한 形편이다.

이에 著者는 症狀 수집 단계에서부터 보다 우수한 八綱과 辨證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身體 形態에서의 個體性 觀察에 대한 研究에서 意味있는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歷代 韓醫學의 綜合 醫書와 診斷 專門 書籍 중에서 身體 形態 診斷의 내용이 잘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黃帝內經』, 『東醫壽世保元』, 『臨證指南醫案』, 『醫門棒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상의 역대 서적과 연관이 있는 현대의 『內經 診斷學』, 『人體體質學』, 『中醫診斷學』, 『中醫疾病豫測學』과 같은 진단 서적을 참고하여 보충 설명하였다.

- 1) 김경철, 신순식, 이용태. 신체 형태 관찰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19:1162-1168.
- 2) 김경철, 이용태, 신순식. 전신 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873-880.
김경철. 영추 음양이십오인편 지인법에 나타난 인식과 사고 방식의 형성요인에 대한 체질구성론적인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1237-1241.
- 3) 김경철, 김규곤, 강창완, 이용태, 지규용, 김종원, 이인선. 형상진단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121-139.
이재원.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모아레 포도그래피의 응용. 한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995;1:273-287.
- 4) 김규곤, 이용태, 김종원, 김경철, 지규용, 이인선, 전수형, 강창완. 한방진단함수개발에서 진단정확률과 진단성공율을 이용한 전문가 수의 결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13:2853-2865.
- 5)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서울, 한얼문고, 1973:3.
- 6)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 성보사, 1983:23.

- 7) 이제마 원저. 동의학연구소 편역. 原文對譯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2002:277.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 8) 김경철, 이용태, 신순식.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873-880

Ⅲ. 본론 및 고찰

韓醫學의 辨證施治에서 個體 特性 要因은 주로 病理 體質 診斷에서 가치가 있으며, 『黃帝內經』以後에 類型 體質論으로 활용하고 있는데⁹⁾, 그 편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類型 體質 學說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黃帝內經』이후에 人間의 個體性을 파악하는 방법은 四診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그중에서 주로 望診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보다 정확한 辨證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韓醫學의 個體 特性 要因의 診斷에는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¹⁰⁾ 첫째, 全一의인 綜合性 反應을 고려하여 類型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는 臨床에서 病理의인 體質이 관여하는 機能 變化의 形式이다. 둘째, 病理 體質 診斷은 長期間의 慢性的인 症狀와 관련하여 病理 體質의 特性이 表出된다는 점이며, 이는 현대 한국의 成人 疾患이 주로 慢性 生活習慣病임을 고려할 경우, 매우 큰 활용도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 慢性的인 症狀는 주로 病理 體質的인 要素가 매우 깊게 관여하며, 이 病理 體質的인 要素의 把握은 望診의 直覺的인 診斷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疾病의 徵兆와 症狀이 出現함에 있어서, 個體 差異성이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같은 樣相의 疾病 症狀이라도 個體 特性이 다르므로¹¹⁾ 나타나는 症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身體 形態 望診에서 살펴보는 個體 特性의 價値라고 할 수 있다.

1. 『黃帝內經』의 身體 形態 望診에서 나타난 個體性

個體 特性 要因에 대한 望診은 『黃帝內經』에서

9)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3:89. 辨證에서의 개체성의 체질 진단과 類型體質을 언급하고 있다.
10) 上揭書. p.183.에서 세가지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
11)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9. 질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 특성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부터 시작되었으며,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 등에서 診斷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望診의 내용은 크게 個體 特性 要因의 全般的인 狀態를 把握하는 整體的인 全身 形態 診察과 身體의 어느 한 部位를 살펴보는 局部的인 診察이 있다¹²⁾. 이 중에서 全一의인 形象의 全身 形態 望診은 患者의 形體, 動態, 形氣, 形色 등을 診察하는 것이며, 形態·神色으로 표현하기도 한다¹³⁾. 이는 신체의 한 부분의 異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부위의 病態를 반영하며, 또한 健康人의 形態·神色은 正常的인 現象을 표현하기도 한다.

(1) 形態 望診에서 나타난 個體性에 대한 類型化

強弱肥瘦와 病的인 姿態 등의 기본적인 形體 외에, 望診을 통한 形態 診察은 人間의 個體 特性 要因을 觀察하는 중요한 方法으로서, 體質 形態 望診으로도 다루어진다¹⁴⁾. 『黃帝內經』에서 個體 特性 要因을 나타내는 全身의 形體와 動態의 觀察을 통한, 臟腑, 氣血, 邪正의 상태를 파악하는 形態 望診法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黃帝內經素問』 「三部九候論編第二十」에서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이라¹⁵⁾ 하였으며, 「經脈別論編第二十一」에서 “觀人勇怯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라고¹⁶⁾ 하여, 診斷과 治療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身體의 形態는 靜的인 形體의 觀察과 動的인 動態의 觀察로 구성되어, 形態의 陰陽的인 觀察을

12)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出版社, 1983:11.

13)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3:184.

14)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24. 人類 體質을 陰臟人, 陽臟人, 陰陽和平之人的 3가지 類型으로 구분하고 있다.

15) 洪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81.

16) 上揭書. p.86.

이룬다¹⁷⁾. 이는 患者 形體의 強弱肥瘠과 動靜姿態를 통하여 진찰하는 것이다. 즉, 人體는 內外 統一의 體系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內部 臟器에 疾患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반응 현상이 臟腑 中心의 系統的인 體系에 따라 體表에 反映된다. 이를 『望診遵經』에서도 “夫體以形言, 態以容言, 觀其體, 察其態, 斯病證明而病情著”라고 하여¹⁸⁾ 중요시하고 있다. 즉, 全身의 外部에 들어난 形態를 관찰함으로써, 內部 臟器의 堅脆, 氣血의 盛衰, 邪正의 消長을 아는 것이다. 形體와 動靜姿態 觀察에서 “陽主動, 陰主靜”, “陽化氣, 陰成形”의 두가지 理論에 根據하여¹⁹⁾ 形態 體質의 診斷을 活用하는 것이다. 또한 體型의 分類는 體格의 類型으로서, 強弱肥瘦 大小長短과 皮膚筋骨 등의 體格의 外部의인 特徵으로 분류되는데, 각 個人은 모두 獨特한 體型 特徵이 있으며, 보통 遺傳의인 先天 稟賦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부차적으로 地理, 生活, 發育與件 등의 後天의인 要因과 관련하는 것으로 본다²⁰⁾.

『黃帝內經』에서 個體 特性 要因을 나타내는 形態 分類는 크게 두 가지로 區分되는데²¹⁾, 하나는 陰陽說에 根據한 것으로서, 사람의 體質, 形態, 性情 등이 陰陽氣 稟賦의 차이에 根據하는 것으로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의 五分類로 나뉘어 生理 特徵 등을 說明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先天의으로 稟賦된 다른 各種 形體를 五行學說에 根據하여 木火土金水의 五類로 歸納 整理하고서, 다시금 五音의 太少의 屬性으로써 上下左右의 再區分으로 二十五 種類의 同中求異의 類型을 求하는 것이다.

陰陽論에 基盤하는 陰陽 多少의 五態人論은

『黃帝內經靈樞』 「通天第七十二」에 나타난다²²⁾. 이는 東武 李濟馬의 四象體質論 思考의 시초가 되어 類型 體質論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에서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 略得外形 未得臟理 蓋 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 未盡精究也”라고 하여²³⁾, 자신의 연구의 始端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黃帝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의 연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韓醫學은 生體 氣의 自發의인 自己 代謝를 중시하여 生命체를 관찰하므로 個體生理, 個體病理를 인정하는 醫學 체계를 형성하였다²⁴⁾고 할 수 있다.

陰陽 多少에 의한 形態 類型의 區分을 內經에서는 心理的인 측면과 形態의인 특징을 함께²⁵⁾ 고려하여 五類型으로 보고 있으며, 각 類型 別로 特性, 陰陽 多少, 形態를 다루고 있다. 특히 陰陽의 多少는 稟賦된 것으로서 天稟之純陰(太陰), 多陰少陽(少陰), 純陽(太陽), 多陽少陰(少陽), 并陰陽和平으로 나누어진다. 이 五態人의 내용은 黃帝內經의 二十五人의 五行 性質과는 다른 것으로서, 五行으로 鑑別하기 어려운 것을 陰陽 多少의 五態人으로 구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太陰之人은 營血이 濁하고 衛氣가 濇하여 陰陽氣의 순환이 不和하고 筋肉이 弛緩하고 皮膚가 肥厚하므로, 形態는 거뭇거뭇한 모양으로 黧黹然하며, 깊이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 않으려 하고, 健實長大하다²⁶⁾. 太陰之人의 特性을 陰陽 多少의

17)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出版社, 1983:13.

18) 동의대학교 한의대 제7기 졸업위 편역. 枉宏 著. 望診遵經. 서울, 도서출판 木과 토, 2000:242.

19)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2005:97.

20)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89:53.

21)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2005:55.

22)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302.

23) 이제마 原著. 洪순용, 이을호 講述. 사상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94:144.

24) 윤길영. 동의학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1983:23, 36, 57.

25)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28.

26)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302. “太陰之人 貪而不仁, 下齊湛湛, 好內(納)而惡出, 心抑而不發, 不務於時, 動而後人...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其狀黹

生理 病理의 측면으로 관찰할 때, 形態는 陰으로 偏重되므로 吸聚 吸入의 氣運이 지나치게 강하여, 血行이 느리고 過多營養으로 血濁하기 쉽고 皮膚 衛氣는 澁하게 된다. 그리고 少陰之人은 六腑중에서 胃臟이 小하고 中上의 脾가 小하며, 大腸이 大하고 下의 腎이 大하므로 六腑를 중심으로 不調한 상태에 있다²⁷⁾. 여기서 東武가 말한 少陰人之 腎大 脾小한 生理 特性의 일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陽明脈과 太陽脈의 관계상 신체가 앞으로 굽혀지기 쉬운 形象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黃帝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의 關聯性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화기의 不調和로 自己化의 統合 機能이 虛弱하여 2차적으로 心血도 또한 不足하여 心弱한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形態는 평소 소탈한 듯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본래는 침울하고 조용하나 일이 생기면 떠들썩하고 가볍게 되며, 걸을 때는 내려다보고 걷는 편이다.

太陽之人은 어떤 거처에도 만족스러운 모양이며, 대사를 호언장담하고, 능력이 없어도 큰 소리를 하며, 뜻이 밖으로 향하여 크고, 행위에 시비를 가리지 않으며, 일을 처리함에 자신이 있고 비록 실패를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全身 形態는 득의양양한 모양이며, 태연하고 용납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몸을 뒤로 젖혀 결국 무릎이 구부정한 형태로 仰腰挺腹의 전신 형상이 된다²⁸⁾. 그리고 少陽之人은 사리를 치밀하게 살피고, 자신을 귀한 듯이 여겨, 조그만 총명과 관직을 높은 듯이 뽐낸다. 밖으로 도는 외교성이 좋고 개인이나 집안일 같은 내부적인 일을 중

시하지 않는다. 陽이 많고 陰이 적다. 經脈이 작고 絡脈이 크므로, 바깥의 혈관인 정맥 등이 볼록 나온다. 이의 全身 形態는 가슴을 펴고 몸을 뒤로 젖혀 하늘을 보고 서 있는 품이며, 걸을 때는 상체를 흔들고, 몸을 뒤로 젖힌 관계로 팔이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⁹⁾.

陰陽和平之人은 행동과 거처가 안정되고,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으며, “陰陽氣和, 血脈調”하므로, 전신의 형태는 의젓하며,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는 모양이며, 엄숙엄정한 모양이며, 흡족하는 모양이며, 눈매가 예쁘고 단정하고 온화한 모양이며, 품위가 있는 모양이며, 뜻이 즐거운 모양이다³⁰⁾.

한편, 五行論에 근거한 二十五人은 『黃帝內經 靈樞』 「陰陽二十五人第六十四」에³¹⁾ 나타난다. 五行 學說에 근거하여 稟賦가 다른 각종의 體形을 五行의 5類型으로 귀납한 이론이다. 五行 性質의 사람을 다시 手足의 陰陽 經脈의 上下의 血氣 상태에 따라 25種의 類型으로 구분하고 외견상의 특징인 皮膚色, 體形, 態度, 時令의 適應에서 그 사람의 性質을 診斷하는 方法이다³²⁾.

木形人은³³⁾ 皮膚色이 蒼色이며, 얼굴 형태가 小頭, 長面하다. 등이 곧으며, 小手足하다. 好有才하며, 心勞하기 쉽고, 少力하며, 근심이 많고 外勞於

黷然黑色, 念然下意, 臨臨然長大, 臃然未僕”

27) 上揭書. p.302. “小貪而賊心, 見人有亡 常若自得, 好傷好害, 見人有榮 乃反愠怒, 心疾而無恩...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其狀清然 竊然, 固以陰賊, 立而躁嶮, 行而似伏”

28) 上揭書. p.302. “居處於于, 好言大事, 無能而虛說, 志發於四野 舉指不顧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而常無悔...多陽而少陰...其狀軒軒儲儲, 反身折膕”

29) 上揭書. p.302. “諛諛好自貴, 有小小官 則高自宣, 好爲外交而不內附...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在外...其狀立則好仰, 行則好搖, 其兩臂兩肘 則常出於背”

30) 上揭書. p.302. “居處安靜, 無爲懼懼, 無爲欣欣, 婉然從物, 或與不爭, 與時變化, 尊則謙謙, 譚而不治, 是謂至治...陰陽氣和, 血脈調...其狀委委然 隨隨然 騁騁然 愉愉然, 曠曠然, 豆豆然(豈豈然), 衆人皆曰君子”

31)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274-276.

32)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2005:104.

33)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274.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背(身), 身小(手足), 手足好, 勞心, 少力, 多憂, 勞於事...佗佗然...遺遺然...推推然...隨隨然...括括然(括括然)”

事하다. 이의 分類 및 態度는 足厥陰의 木形之全과 足少陽의 上下左右, 四股側偏의 木形之偏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足厥陰(木形之全)으로 佗佗然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태도이다. 安重하고 筋柔遲重한 形貌이다. 이는 木氣의 온전함을 陰經으로 설명한 것이다. 둘째는 左足少陽之上(木形之偏)으로 遺遺然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셋째는 右足少陽之上으로 推推然하며, 진보적이고 전진적인 태도를 보인다. 넷째는 右足少陽之下으로 隨隨然하여, 순종한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는 左足少陽之下으로 栝栝然하여 방정하고 긴장한 태도를 나타낸다. 木氣의 偏僻됨을 陽經으로 설명한 것이다.

火形人³⁴⁾ 皮膚色이 赤色이며, 등의 살집이 풍만하고 넓다. 얼굴은 뾰족하고 머리가 작다. 견배와 요복이 조화롭고, 손발이 적다. 보행이 안정하나, 성격이 급하며, 행동할 때 어깨근육이 동요하기도 한다. 또한 기백이 있으며, 저축보다 소비를 잘하고, 신용이 적기도 하다. 사려가 많고 사리에 밝다. 이의 분류 및 태도는 手少陰과 手太陽으로 구분된다. 첫째, 手少陰(火形之全)으로 核核然하여, 알차고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 둘째, 左手太陽之上(火形之偏)으로 肌肌然하여 피부가 얇다. 셋째, 右手太陽之上으로 鮫鮫然하여, 돌격적인 태도로서 踴躍貌하다. 넷째, 右手太陽之下로 惛惛然하여 기쁨이 지나친 도도한 태도로 喜悅之態이다. 다섯째, 左手太陽之下로 支支頤頤然으로 지레 자득, 짐작하는 태도를 보인다.

土形人³⁵⁾ 피부색이 黃色이며, 얼굴은 둥글다.

배가 크고, 팔다리의 살집이 좋다. 신체 상반신과 하반신이 조화롭고, 행동이 안정된다. 이의 분류 및 태도는 足太陰, 足陽明으로 한다. 첫째는 足太陰으로 敦敦然하여, 여유롭고 침착한 태도를 보인다. 둘째, 左足陽明之上 婉婉然하여, 몸가짐이 아리답고 맵시가 있는 태도이다. 셋째, 右足陽明之上으로 樞樞然하여 듻직하고 믿음직한 태도를 나타낸다. 넷째, 右足陽明之下 兀兀然으로, 마음이 한곳으로 써서 동요하지 않는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는 左足陽明之下로 坎坎然하여 힘이 실린 묵직한 태도를 보인다.

金形人³⁶⁾ 피부색은 白色이며, 얼굴이 모가 나고, 頭, 肩背, 腹, 手足이 적은 편이다. 골격이 적고, 또한 성격이 깨끗하다. 성급하며, 가만히 있을 때는 평온한 듯 보이나, 행동 할 때는 결단이 빠르다. 이의 분류 및 태도는 手太陰, 手陽明으로 한다. 첫째, 手太陰으로 敦敦然하여,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인다. 둘째, 左手陽明之上 廉廉然하여 모가 난 태도를 나타낸다. 셋째, 右手陽明之上 監監然하여 무엇을 빠뜨리고 간과하여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넷째, 右手陽明之下 嚴嚴然하여 장중하고 엄숙한 태도를 나타낸다. 다섯째, 左手陽明之下 脫脫然하여 갈끔, 깨끗하고 뒤가 없는 태도로 瀟灑貌하여 깨끗하고 산뜻한 모양이다.

水形人³⁷⁾의 피부색은 黑色이며, 얼굴 기복이 있거나 혹은 곡면이다. 턱이 모나거나, 혹은 턱이 크고, 배가 크다. 항상 손발을 흔들며, 행동시 신체를 흔들다. 허리 아래가 길고 등이 길어 장신이다. 이의 분류 및 태도는 足少陰과 足太陽으로 한다. 첫째, 足少陰

34) 上揭書. p.274. “赤色, 廣胛肉滿, 銳面, 小頭, 好肩背腓腹, 小手足, 行安地, 疾心行搖, 肩背肉滿, 有氣, 輕財, 少信, 多慮 見事明, 好顏, 急心, 不壽暴死...核核然...肌肌然...鮫鮫然...惛惛然...支支頤頤然”

35) 上揭書. p.274. “黃色, 圓面, 大頭, 美肩背, 大腹, 美股脛, 小手足, 多肉, 上下相稱, 行安地, 舉足浮, 安心, 好利人, 不喜權勢, 善附人也...敦敦然...婉婉然...樞樞然...兀兀然...

坎坎然”

36) 上揭書. p.275. “方面, 白色,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 如骨發踵外, 骨輕, 身清廉, 急心, 靜悍 善爲吏...敦敦然...廉廉然...脫脫然...監監然...嚴嚴然”

37) 上揭書. p.275. “黑色, 面不平, 大頭, 廉頤, 廣頤, 大腹, 下尻長 背延延然...汗汗然...安安然...頰頰然...潔潔然...紆紆然”

으로 汗汗然 혹은 汗汗然하여 멋대로 하는 태도를 보인다. 둘째, 左足太陽之上 安安然하여 답답할 정도로 안일한 태도이다. 셋째, 右足太陽之上 頰頰然하여 뺨에 나타날 정도의 득의만만한 태도를 보인다. 넷째, 右足太陽之下 潔潔然하여 외모가 청결하고 고고한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 左足太陽之下 紆紆然하여 우회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처럼 『黃帝內經』에 나타난 身體 形態에 근거한 個體性 觀察은 全身 形態와 局所 形態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全身 形態 觀察은 生理的인 特性과 心性的인 面과 連結하여 類型 體質論의 側面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2) 五臟六腑의 狀態를 外見으로 아는 望診法

五臟六腑의 狀態를 外見으로 아는 望診法은 『黃帝內經靈樞』 「本臟第四十七」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³⁸⁾, 신체 내부 기관인 장부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먼저 五臟의 狀態를 살피는 觀察法이다. 心의 진찰은 검상돌기 부위에서 할 수 있는데, 心의 狀態는 검상돌기의 촉진과 兩眉間 사이의 印堂 부위의 피부색의 관찰로 그 형태와 기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³⁹⁾. 肺의 진찰 부위는 胸肩背部이며, 이런 肺의 狀態는 眉間의 피부색과 견배부, 흉협부의 관찰로써 파악할 수 있다⁴⁰⁾. 肝의 진찰 부위는 脇下 및 胸膈部

이며, 이런 肝의 狀態는 鼻柱 部位의 색이나 脇部의 狀態로 파악할 수 있다⁴¹⁾. 脾의 진찰 부위는 口脣 부위이며, 脾의 狀態는 鼻柱와 口脣의 관찰로 파악할 수 있다⁴²⁾. 마찬가지로 腎의 진찰 부위는 腰이며, 이런 腎氣가 發顯하는 外部 部位는 耳部이다⁴³⁾.

또한 六腑의 狀態를 관찰하는 방법은 五臟의 中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⁴⁴⁾. 즉, 大腸은 肺를 통하여 皮의 狀態로 파악하며⁴⁵⁾, 小腸은 心을 통한 血脈의 狀態로 파악하고⁴⁶⁾. 胃는 脾를 통한 肉의 狀態로써

痺易傷. 肺端正則和利難傷. 肺偏傾則胸(脅)偏痛也.”, “白色小理者, 肺小. 麤理者, 肺大. 巨肩反膺陷喉者, 肺高. 合腋 脹脇者, 肺下. 好肩背厚者, 肺堅. 肩背薄者, 肺脆. 背膺厚者, 肺端正. 脇偏疎者, 肺偏傾也.”

41) 上揭書, pp.213-214. “肝小則(臟)安, 無脇下之病(痛). 肝大則逼胃迫咽, 迫咽則苦膈中, 且脇下痛. 肝高則上支責, 切脇悅, 爲息責. 肝下則逼胃, 脇下空, 脇下空則易受邪. 肝堅則臟安難傷. 肝脆則善病消痺易傷. 肝端正則和利難傷. 肝偏傾則脇下(偏)痛也.”, “青色小理者, 肝小. 鄒理者, 肝大廣胸脇)反駁者, 肝高. 合脇兔駁者, 肝下. 脇好者, 肝堅. 脇骨弱者, 肝脆. 膺腹好相得者, 肝端正. 脇骨偏學者, 肝偏傾也”.

42) 上揭書, pp.213-214. “脾小則臟安, 難傷於邪也. 脾大則苦湊眇而痛, 不能疾行. 脾高則眇引季脇而痛. 脾下則下加於大腸, 下加於大腸, 則(脾)臟苦受邪. 脾堅則臟安難傷. 脾脆則善病消痺易傷. 脾端正則和利難傷. 脾偏傾, 則善滿善脹也”, “黃色小理者, 脾小. 麤理者, 脾大. 擗脣者, 脾高. 脣下縱者, 脾下. 脣堅者, 脾堅. 脣大而不堅者, 脾脆. 脣上下好者, 脾端正. 脣偏學者, 脾偏傾也.”

43) 上揭書, pp.213-214. “腎小則臟安難傷. 腎大則(耳聾或鳴)善病腰痛, 不可以俛仰, 易傷以邪. 腎高則苦背脊痛, 不可以俛仰. 腎下則腰尻痛, 不可以俛仰, 爲狐疝. 腎堅則不病腰背痛. 腎脆則善病消痺易傷. 腎端正則和利難傷. 腎偏傾則苦腰尻(偏)痛也.”, “黑色小理者, 腎小. 麤理者, 腎大. 高耳者, 腎高. 耳後陷者, 腎下. 耳堅者, 腎堅. 耳薄不堅者, 腎脆. 耳好前居牙車者, 腎端正. 耳偏高者, 腎偏傾也.”

44) 上揭書, p.215. “肺合大腸, 大腸者, 皮其應. 心合小腸, 小腸者, 脈其應. 肝合膽, 膽者, 筋其應. 脾合胃, 胃者, 肉其應.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

45) 上揭書, p.215. “肺應皮, 皮厚者, 大腸厚. 皮薄者, 大腸薄. 皮緩腹裏大者, 大腸大而長. 皮急者, 大腸急而短. 皮滑者, 大腸直. 皮肉不相離者, 大腸結.”

46) 上揭書, pp.215. “心應脈, 皮厚者, 脈厚, 脈厚者, 小腸厚. 皮薄者, 脈薄, 脈薄者, 小腸薄. 皮緩者, 脈緩, 脈緩者, 小腸

38) 上揭書, pp.213-215.

39) 上揭書, pp.213-214. “心小則安, 邪弗能傷, 易傷於憂. 心大則憂不能傷, 易傷於邪. 心高則滿於肺中, 悅而善忘, 難開以言. 心下則臟外, 易傷於寒, 易恐以言. 心堅則臟安守固. 心脆則善病消瘴熱中. 心端正則和利難傷. 心偏傾則操持不一, 無守司也.”, “赤色小理者, 心小. 麤理者, 心大. 無鬲舒者, 心高. 鬲舒小短學者, 心下. 鬲舒長者, 心堅. 鬲舒弱小以薄者, 心脆. 鬲舒直下不學者, 心端正. 鬲舒倚一方者, 心偏傾也.”

40) 上揭書, pp.213-214. “肺小則少飲, 不病喘(喝). 肺大則多飲, 善病(胸痺喉痺)逆氣. 肺高則上氣肩息欬. 肺下則居責迫肝, 善脇下痛. 肺堅則不病欬(逆)上氣. 肺脆則苦(善)病消

과악하며⁴⁷⁾. 膽은 肝을 통한 爪의 상태로 과악하고⁴⁸⁾. 三焦 膀胱은 膜理의 상태로 판단한다⁴⁹⁾.

이처럼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臟六腑의 狀態를 外見으로 아는 望診法은 신체 外形의 狀態를 통하여 신체 내부의 臟腑의 다양한 구조와 기능의 특성과 차이를 알아냄으로써, 韓醫 診察에서 個體特性 要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辨證施治에서 개체생리와 개체병리의 특성을 관찰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3) 局所 部位 診察로서 內部的 臟腑를 測知함

局所 部位 診察로서 內部的 臟腑를 測知하는 내용은 주로 『黃帝內經靈樞』 「師傳第二十九」⁵⁰⁾, 『黃帝內經素問』 「脈要精微論篇 第十七」⁵¹⁾에 나타난다. 신체 外部 形態를 좇아서 內部的 臟腑機能의 정상여부를 알 수 있다. 身形肢節의 외관방면으로써 내부 장기의 강약, 대소 및 생리작용 활동의 정상여부를 測知하는 것이다⁵²⁾. 먼저 五臟之侯에

大而長. 皮薄而脈冲小者, 小腸小而短. 諸陽經脈皆多紆屈者, 小腸結.”

47) 上揭書, p.215 “脾應肉(脰), 肉脰堅大者, 胃厚. 肉脰麼者, 胃薄. 肉脰小而麼者, 胃不堅. 肉脰不稱身者, 胃下, 胃下者, 下管約不利. 肉脰不堅者, 胃緩. 肉脰無小裏累者, 胃急. 肉脰多少(小)裏累者, 胃結, 胃結者, (胃)上管約不利也.”

48) 上揭書, p.215. “肝應爪, 爪厚色黃者, 膽厚. 爪薄(色紅)者, 膽薄. 爪堅(色青)者, 膽急. 爪濡色赤者, 膽緩. 爪直色白無約者, 膽直. 爪惡(色黑)多紋者, 膽結也.”

49) 上揭書, p.215. “腎應骨, 密理厚皮者, 三焦膀胱厚. 麤理薄皮者, 三焦膀胱薄. 踈腠理者, 三焦膀胱緩. 皮急而無毫毛者, 三焦膀胱急. 毫毛美而麤者, 三焦膀胱直. 稀毫毛者, 三焦膀胱結也.”

50) 上揭書, pp.164-165.

51)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57-59.

52) 內經을 살펴보면, 이런 내부 臟腑에 상응하는 身形의 관찰 부위는 크게 顔面과 胴體의 각 부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內經의 얼굴과 몸뚱이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形象의 觀察法은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 體質의 파악에 容貌詞氣와 體形氣像을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는

서 身體 部位 形態에 따른 臟腑의 觀察法을 살펴보면, 肺는 “五臟六腑之蓋, 巨肩陷咽喉, 見於外”라 하였으므로 폐장은 최고에 위치하여, 肩下와 咽喉 部の 함몰 부위로서 폐장의 위치적인 高低를 알 수 있다. 心은 “五臟六腑之主, 缺盆爲之道, 髀骨有餘以候鬲肝”라 하였으므로, 심장은 오장육부의 主이며 缺盆은 脈氣升降의 道路이다. 양 缺盆의 거리의 크기와 흉골 검상돌기의 형태로 심장의 高下堅脆를 알 수 있다. 肝은 “主爲將, 使之候外, 欲知堅固 視目小大”라 하였으므로, 간장의 특성은 외부사기의 침입을 방어하는 능력이다. 눈의 크기(目之大小)를 보고 간의 강약을 알 수 있다. 脾는 “主爲衛(胃), 使之迎糧, 視脣舌好惡, 以知吉凶”라 하였으므로, 脾主運化하여 음식물의 정미를 신체 각부에 수송하여 영양을 유지한다. 脣舌이 맛을 대하는 상황에 근거하여 脾臟病의 길흉을 알 수 있다. 후천지기를 運輸하여 臟腑之護衛가 되므로, 脾爲之衛라고 하였다. 腎는 “主爲外(水), 使之遠聽, 視耳好惡, 以知其性”라 하였으므로, 腎開竅於耳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청각의 정상 여부에 근거하여 신장의 강약과 사람의 성정을 알 수 있다.

또한 五臟은 人體의 根本이며, 근본이 강건하면 身形支節의 신체가 강건하다. 頭는 “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奪矣”라 하였으므로, 頭藏腦하며 腦爲髓海인데, 장부의 精氣는 모두 頭로 상승되므로 頭는 精明之府가 된다. 만약 頭部를 오래도록 경사하여 눈을 혹사하면 정신이 쇠퇴해진다. 背는 “胸中之府 背曲肩隨 府將奪矣”라 하였으므로, 오장은 흉중에 있고 그 반응처인 俞穴은 背에 있으므로 背는 胸中之府이다. 만약 肩背가 만곡 되면 흉중의 장기가(특히 肺) 쇠약해지려는 현상이다. 腰은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라 하였으므로, 腎臟은 腰部에 위치하므로 腰는 腎之府이다. 만약 腰痛은

점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形象 診斷 研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로 허리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腎氣가 쇠약해지는 증후이다. 膝은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라 하였으므로, 筋肉은 관절의 屈伸운동을 주관하고 膝은 대표적인 큰 관절이므로 슬은 근지부이다. 만약 膝이 굴신불리하면 筋이 무력해지려는 증후이다. 骨은 “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 骨將憊矣”라 하였으므로, 髓는 骨內에 있으므로 골은 수지부이다. 만약 오래 서지 못하거나 움직일 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骨이 쇠약해지려는 증후이다.

다음으로 六腑之候에서, 胃는 “水穀之海 廣骸, 大頸, 張胸, 五穀乃容”라 하였으므로, 胃는 水穀의 바다로서 骨格이 寬大하고 頸部의 목둘레가 壯大하고 胸部가 舒張하면 胃의 음식물 용량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작다. 大腸은 “鼻隧以長, 以候大腸”라 하였으므로, 大腸은 肺와 表裏이므로 鼻道의 深長여부로 대장을 測知한다. 즉, 코가 크면 大腸이 쉽게 병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小腸은 “脣厚, 人中長以候小腸”라 하였으므로, 口脣의 厚薄과 人中의 長短으로 소장을 측지한다. 膽은 “目下裹大(巨裹), 其膽乃橫(剛強)”라 하였으므로, 眼下的 胞의(囊裹) 크기로 膽強(眼下胞大), 膽弱을 측지한다. 膀胱은 “鼻孔在外, 掀露”라 하였으므로, 鼻孔이 내밀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膀胱漏泄로 診斷한다. 즉, 鼻孔의 出氣로써 膀胱水道의 通利여부를 알 수 있다. 三焦은 “鼻柱中央起 三焦乃約(固密也)”라 하였으므로, 鼻柱 中央의 융기로써 三焦의 氣化작용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혹은 三焦를 下焦의 비뇨생식기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상은 五官의 형태에 근거하여 육부의 기능여부를 측후하는 방법이다.

이로 보아, 『黃帝內經』의 個體 特性 要因 診察은 臟象論과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心理的인 측면과 身體的인 體質을 統一的으로 論議하고 있으며, 病因과 病理의 內容을 提供하고, 診斷과 治療의 根據로 삼고 있다. 또한 個人 特性 要因의 診斷

은 疾病을 豫測하는 意義가 있는데, 體質로 疾病의 潛在的인 傾向, 壽命, 疾病의 轉化 趨勢를 豫測할 수 있다.

2.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類型 體質論에서 살펴본 個體 特性 要因을 把握하는 形態 診斷

東武 李濟馬가 제시한 體質 診斷의 內容은 體形 氣象, 容貌詞氣, 性情, 病證의 綜合的인 合一性의 追究이다. 여기서는 形態 望診과 關聯되는 部分을 살펴보기로 한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의하면,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이라 하여⁵³⁾, 精氣를 貯藏하여 生命現象의 主體的인 역할을 하는 臟의 大小 중심으로 四象類型 個體 特性을 定義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부터 由來하는 精神氣血津液論, 五臟六腑論, 經絡論, 六氣論 등의 人체 生理現象 研究論에서 五臟 중심으로 四象 類型 個體性을 규정하는 것은 四象類型 體質이 바로 先天的인 類型體質論이며⁵⁴⁾, 體質 不變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六腑, 經絡 등의 구분으로 四象類型 先天體質을 임의로 재분류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앞으로 個體性을 관찰함에 있어서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구분이 필요하고, 동시에 不變과 可變의 영역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臟의 大小를 두고, 儒敎 哲學的인 견해⁵⁵⁾에서부터 무의미한 가치를 두는 해석⁵⁶⁾까지 여러 입장이 분분하나, 大小라는 글귀는 強弱, 虛實 등과는 다르게 구조적인 측면을 가진다. 東武 李濟

53) 이제마 原著. 홍순용, 이을호 講述.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94:36.

54)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서울, 한얼문고, 1973:17.

55) 류주열. 새로운 사상의학. 서울, 물고기술, 2013:52.

56) 강용혁. 四象心學. 서울, 대성의학사, 2010:189.

馬가 四象類型體質 研究의 深度에 따라 強弱, 虛實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大小로 최종 정착한 것⁵⁷⁾ 또한 의미가 있다. 東武 李濟馬가 결론적으로 臟의 大小를 기준으로 삼아, 四象類型 體質 特性의 範疇를 規定한 것은 構造를 바탕으로 機能까지를 포함하여 人體를 觀察하는 形態論의인 實證의 立場을 堅持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黃帝內經』의 實證的 科學的인 立場과 동일하다. 따라서 四象類型體質 診斷은 形態論的인 立場을 가지는 것이 傳統的인 方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全身形態에 근거한 四象類型體質 診斷法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 잘 나타나 있다. “太陽人 體形氣像 腦佳頁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佳頁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이라 하여⁵⁸⁾, 『黃帝內經』의 全身形態 診斷의 정신을 이어받은 體刑氣像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체질별 體刑氣像의 盛壯과 孤弱의 근거가 바로 肺脾肝腎 四臟의 大小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東武는 四象類型體質別 體形 診斷을 언급하고 있다. 太陽人 體形 觀察의 경우, “太陽人 體形 元不難辨 而人數 稀罕故 最爲難辨也 其體形 腦佳頁之起勢強旺 性質疏通 又有果斷, 其病 噎膈反胃 解休證 亦自易辨 而病未至重險之前 別無大證 完若無病壯健人也.”라고 하여⁵⁹⁾, 그 수의 적음으로 인하여, 진단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太陽女 體形 壯實 而肝小脇窄 子宮不足 故不能生產, 以六蓄玩理 而太陽牡牛馬 體形壯實 而亦不能生產者 其理可推”라고 하여⁶⁰⁾, 體形 觀察

을 太陽人 女性의 난임 상태를 추정하는 근거로 까지 활용하고 있다.

또한 少陽人의 경우,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이라고 하여⁶¹⁾, 그 체형의 돌출성으로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더불어 “少陽人 或有短小靜雅 外形 恰似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 不可誤作少陰人治”라고 하여⁶²⁾, 體形이 端雅하여 少陰人과 유사한 少陽人은 寒熱 病證을 자세하게 診察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太陰人과 少陰人의 경우에는 “太陰少陰人 體形 或略相彷彿 難辨疑似 而觀 其病證則必無不辨”이라 하여⁶³⁾, 두 體質 사이의 體刑이 유사하여 鑑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점은 여러 가지 病證을 참고하여 辨別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完實無病과 疾病으로 대조되는 病證으로는 “太陰人 虛汗 則完實也,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 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 則完實也. 太陰人 有胸膈怔忡證也, 少陰人 有手足惋亂證也, 太陰人 有目眦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 少陰人 則無此證也. 少陰人 平時呼吸 平均 而間有一太息呼吸也, 太陰人 則無此太息呼吸也. 太陰人 痢疾惡寒中 能飲冷水, 少陰人 痢疾惡寒中 不飲冷水.”으로 예를 들면서, 여러 病證의 상태로 健康과 疾病을 구분하여 四象類型體質을 鑑別하는 것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太陰人 脈長而緊 少陰人 脈緩而弱, 太陰人 肌肉 堅實 少陰人 肌肉 浮軟.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 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 小巧”라고 하여, 脈, 肌肉 狀態, 容貌詞氣 등을 함께 고려하여 두 體質을 鑑別하는 내용을 주장하

57) 박성식. 사상의학에서 성정의 중절과 심리치료.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3;26:105-120.

58) 이제마 原著. 홍순용, 이을호 講述.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94:134.

59) 上揭書. p.135.

60) 上揭書. p.136.

61) 上揭書. p.136.

62) 上揭書. p.137.

63) 上揭書. p.138.

고 있다.

이와 함께 “少陰人 體形 矮短 而亦多有長大者 或有八九尺長大者, 太陰人 體形 長大 而亦或有六尺倭短者”이라 하여⁶⁴⁾, 예외적으로 長大한 少陰人 과 倭短한 太陰人의 경우를 관찰하고 있다.

이로 보아, 四象類型體質 鑑別은 個體 特性 要因을 파악하는 『黃帝內經』과 같은 맥락으로 全身 形態 診斷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病證 診斷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武 李濟馬의 四象類型體質 鑑別의 精神은 『黃帝內經』의 全身 形態 診斷의 精神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3. 『臨證指南醫案』과 『醫門奉畧』에서 살피는 個體 特性 要因을 파악하는 形態 診斷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全身 形態 診斷에 대한 논의는 葉桂와 스스로를 丹溪와 葉桂의 뜻을 이어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章楠의 書籍에게서 확연하게 살피볼 수 있다.

(1) 『臨證指南醫案』에서 살피는 個體 特性 要因을 把握하는 形態 診斷

『黃帝內經』의 形態 體質的인 辨證論의 精神은 청대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며, 현대들어 그의 體質辨證論을 연구하는 論文⁶⁵⁾이 있을 정도이다. 葉桂는 治法의 總論으로 個體 特性 要因에 근거한 體質의 陰陽을 區分하여 寒熱虛實의 治療를 하였으며, 診斷의 大法은 먼저 體質이 강한지 약한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여 臨床에서 體質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있다.

華岫雲은 『臨證指南醫案』의 「濕病辨證」에서 “치법의 총론을 말하면 체질의 陰陽을 구분해야 寒

熱虛實의 治療를 알 수 있다.”⁶⁶⁾라고 주를 달고 있고, 葉桂는 『臨證指南醫案』 「幼科要略」에서 “診斷의 大法은 먼저 체질이 강한지 약한지를 밝혀야 한다.”⁶⁷⁾고 하여, “모든 痘를 진찰할 때는 먼저 소아의 몸이 강한지 약한지를 논하고 살갓의 색을 구분해야 한다.”⁶⁸⁾고 했다. 邵新甫는 『臨證指南醫案』의 「虛勞辨證」에서 “葉桂가 활용한 뜻을 헤아리려면 환자 체질의 陰陽을 구분하는 것을 요령으로 삼고 상부, 중부, 하부에서 나타나는 證에 착상해야 한다.”⁶⁹⁾고 주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葉桂는 임상에서 個體 特性 要因에 근거한 體質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葉桂는 患者의 顔色과 肌肉의 狀態 등을 살피어, 體質을 病機와 더불어 陰陽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특히 全身 形態 特徵, 肌肉의 堅結과 柔軟, 얼굴 形態와 色, 皮膚色 등의 면을 고려하여 個人 特性 要因에 근거한 體質과 病機를 곁들여서 陰型과 陽型의 두 類型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現代 中國의 黃煌은 葉桂의 體質論을 木火質, 濕熱質, 肝鬱質, 陰虛質, 陽虛質, 脾弱質 등으로 區分하기도 하였다⁷⁰⁾.

葉桂는 臨床에서 나타나는 病症을 肌肉柔白, 色蒼形瘦, 面長身瘦, 形軀豐溢, 肌柔色黯 등의 形態 特徵을 함께 參考하여 稟賦된 體質的인 特徵과 病機를 결정짓고 診斷과 治療法 및 藥物 使用을 確立하였다. 葉桂는 病證 把握에 必須的인 개체 특성 요인에 근거한 體質 區分의 項目으로 身體 形態

66) 葉天士著. 徐靈胎評. 臨證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362. 「권5」 「濕」 “治法總宜辨其體質陰陽, 斯可以知寒熱虛實之治.”

67) 上揭書. p.742. 「권10」 「幼科要略」. “診之大法, 先明體質強弱.”

68) 上揭書. p.749. 「권10」 「幼科要略」. “凡看痘, 先論兒體強弱, 辨肌色.”

69) 上揭書. p.65. 「권1」 「虛勞」. “揣先生之用意, 以分其體質之陰陽爲要領, 上中下見症爲着想.”

70) 黃煌. 「葉天士體質辨證探討」. 『江蘇中醫雜誌』 1980;3:3.

64) 上揭書. p.139.

65) 黃煌. 「葉天士體質辨證探討」. 『江蘇中醫雜誌』 1980;3:3.

特徴, 肌肉의 堅結과 柔軟, 顔色과 얼굴의 形態, 脈象 등을 꼽았으며, 이들을 첫째, 深度있는 辨證施治를 위한 體質 把握의 資料로, 둘째, 疾病 轉變規則을 把握하는 資料로, 셋째, 正確한 用藥法으로 副作用을 最小化하는 方案으로 活用한 臨床的인 意義가 있다고 하였다⁷¹⁾.

또한 그의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은 비단 慢性的인 雜病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溫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濕溫病에서 患者의 體質을 중시하는데, 얼굴 色이 희고 창백한 것은 많은 경우 평소 몸의 陽氣가 모자라서 다시 濕邪에 감염되면 더욱 쉽게 지치게 되고 심하면 陽氣를 손상시켜 病의 後期에는 陽氣衰微의 虛寒證이 나타나고, 患者의 얼굴에 靑蒼色이 나타나면 많은 경우는 평소 몸이 陰虛火旺한 사람으로 濕熱의 病邪에 감염된 뒤에는 비교적 쉽게 燥가 되고 陰이 손상되므로 가령 熱이 물러나고 몸이 차진 경우에 虛寒證으로 오인해서 溫補劑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평소 陽氣가 旺盛한 사람은 濕邪가 쉽게 熱로 바뀌고 대부분 病은 陽明胃로 귀속되어 임상에서 熱이 濕보다 중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평소 陰盛한 사람은 痰濕이 안에서 쌓이고 陽氣가 衰弱한 것에 치우치고 濕邪에 감염된 후에 熱로 바뀌는 과정이 비교적 느리고 많은 경우에 太陰脾에 머물러 임상에서 濕이 熱보다 중한 상황이 나타나며 病程이 발전함에 점차로 熱로 바뀌어 濕보다 熱이 중한 轉變을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濕熱病의 發病 面에서 內外合邪를 말하면서 病變 過程中에 사람의 體質的인 差異에 따라 다른 轉化를 하여 臨床 類型이 달리 나타남을 제시하고⁷²⁾ 있다.

(2) 『醫門棒喝』에서 살펴본 個體 特性 要因을 파악하는 形態 診斷

章楠 『醫門棒喝』의 「條例」, 「六氣陰陽論」에 의하면 個體 特性 要因을 반영하는 形態 診斷에 根據한 體質 辨證論의 內容은 暑病의 病證을 陰陽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病證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患者의 體質의인 特性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醫門棒喝』의 「條例」, 「六氣陰陽論」에서 잘 나타나며, 「人身陰陽體用論」에서는 形態 診斷을 통한 類型體質論까지 登場하고 있다.

그는 「條例」에서⁷³⁾ 河間의 「六氣皆從化火」를 說明하면서 사람의 體質이 同一하지 않아서 感受된 邪氣가 비록 같더라도 病變이 다른 점을 우선 제시하고 있다. 河間이 暑의 說明에서 暑는 火와 濕의 二氣가 합한 것으로 그 證에 陰證과 陽證이 있고, “中暑는 陰證이 되고 傷暑는 陽證이 되며 움직이는 안정된 상태에서 邪氣를 받는 것을 中이라 하고 움직임에 따라 邪氣를 받는 것이 傷이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火에 치우친 것은 陽證이 되고 濕에 치우친 것은 陰證이 되며, 體質이 강하면서 火가 많은 자는 陽證이 되고 體質이 弱하면서 濕이 많은 자는 陰證이 됨을 알지 못한 연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論邪와 論病은 다르며, 그 이유는 邪氣가 인체에 작용하여 病이 되는 경우, 그 感受된 사람의 개체 특성 요인에 근거한 體質 요소까지 더해져서 病이 變化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暑는 火와 濕의 결합으로서, 暑病에서 邪氣 爲主 分類로는 火에 치우치면 陽證, 濕에 치우치면 陰證이라고 본다면, 個體 特性 要因인 體質 爲主 分類에서는 체질이 강하면서 火가 많은 자는 陽證을 일으키고, 체질이 弱하면서 濕이 많은 자는 陰證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71) 黃煌. 「葉天士體質辨證探討」. 『江蘇中醫雜誌』 1980;3:3.

72) 신순식. 섬계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85.

73) 김중환, 김달호 옮김. 章楠 著. 醫門棒喝 醫論篇. 부산, 소강출판사, 1997:17.

또한 「六氣陰陽論 附問答」⁷⁴⁾을 살펴보면, 仲景의 白虎湯이 단지 淸火할 뿐이고 去濕하는 藥이 없으니 곧 暑에 반드시 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答하기를, 暑氣와 暑病은 구분해야 하는데 暑氣는 火와 濕이 서로 습하여 이루어지나 暑氣가 人體를 損傷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또한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서 變하는데,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는 火를 좇아 燥로 變하며 바로 이런 燥와 火가 합한 氣가 바로 白虎湯의 證이 된다. 만약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는 寒을 좇아 濕으로 변할 것이니 寒과 濕이 습한 氣에 白虎湯이 마땅하지 못하고 大順散 冷香飲같은 辛熱한 方劑나, 六和湯 正氣散같은 溫燥한 方劑도 있으며, 桂苓飲같은 濕과 火를 淸消하는 治法도 있어 仲景의 모자람을 補充한다고 하여 暑病에서 人體의 體質에 의한 疾病의 變化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處方까지 提示하고 있다. 즉, 暑氣와 暑病은 구분이 필요하고, 또한 暑病에서 白虎湯證과 非白虎湯證의 구분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暑病에서 暑氣가 사람을 損傷하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 變하며, 더불어 暑病에서 人體의 體質에 의한 疾病의 變化와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處方까지 제시하여, 稟體多火는 燥火로 化함으로써, 白虎湯證이 적합하며, 稟體多寒은 寒濕으로 化함으로써, 大順散, 冷香飲(辛熱), 六和湯, 正氣散(溫燥), 桂茯苓(淸消濕火)등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의 이런 설명은 人體 중에 陰이 旺盛하다면 寒이 많아서 熱藥을 받아들일 수 있고 陽이 旺盛하다면 火가 많아서 涼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陽이 虛하면 쉽게 濕이 생기고 陰이 虛하면 쉽게 燥로 變하니 또한 자연히 同一하지 않으며, 그래서 六氣가 流行하는 것과 病이 되는 것은 本來 當然히 區別해야하나 사람의 體質이 각기 달라서 그 變化는 다 밝힐 수 없다고하여 韓藥의 應用에까지 이어지는

活用法을 主張하며,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陰陽의 強弱이 同一하지 않은 것으로 因하여 邪氣가 感受될 때 輕重이 같지 않으므로 病의 變化가 가지런하지 못한 이유를 재삼 說明하고 있다. 즉, 발병 요인 중에 사람의 체질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病의 變化가 가지런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타고난 體質 陰陽의 強弱이 同一하지 않은 것으로 因하여 邪氣가 感受될 때 輕重이 같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章楠의 태도는 暑病의 陰陽證은 暑邪를 이루는 火濕의 外邪的인 要因 외에 人稟體多火하여 燥火로 化하는 陽證인 경우, 人稟體多寒하여 寒濕으로 化하는 陰證의 경우로 구분하여 사람의 稟賦된 體質에 따른 變化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稟賦體質의 상세한 내용이 內經에 잘 나타나며, 아울러 丹溪先生이 임상적으로 약간을 비추었고, 청대 名醫인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의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남을 強調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章楠은 治病의 要領은 먼저 마땅히 사람의 體質의 陰陽, 強弱을 살펴야 하는데, 이 살피는 方法의 포인트는 그 사람의 形態, 氣象, 色澤, 脈象임을 말하고, 아울러 陽旺陰虛, 體質, 陰陽具盛體質, 陰盛陽虛體質, 陰陽兩虛體質 등으로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 흠어져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여⁷⁵⁾, 『黃帝內經』과 葉天士의 全身 形態 診斷에

75) 김중환, 김달호 옮김. 章楠 著. 醫門棒喝 醫論篇. 부산, 소강출판사, 1997:106.

“①假如形瘦色蒼 中氣足 而脈多弦 目有精彩 飲食不多 却能任勞 此陽旺陰虛之質也. 每病多火, 須用滋陰淸火. ②若更兼 體豐肌厚 脈盛皮粗 食啖倍多 此陰陽俱盛之質, 平時少病, 每病多重, 以邪蓄深久故也, 須用重藥 如大黃 芒硝 乾薑 桂 附之類 寒熱之藥 彼俱能受, 以稟厚能任削伐, 若用輕藥, 反不能效也. ③如體豐色白 皮嫩肌鬆 脈大而軟 食啖雖多 每生痰涎 此陰盛陽虛之質, 目有精彩 尚可無妨 如無精彩 壽多不永, 惑未到中年 而得中風之病, 每病雖熱邪 藥不可過寒 更傷其陽, 陽微則防其脫 熱退須用溫補扶陽. ④若更兼形瘦脈弱 飲食不多 此陰陽兩弱之質, 倘目有精彩 耳輪肉厚端正 其先天尚強 神清智朗者 反爲大貴, 若目無彩 神氣昏庸 必多貧夭. 凡陰陽俱弱之質 常

74) 上揭書, p.43.

立脚한 體質辨證論 精神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章楠의 4가지 類型體質論은 人體 陰陽의 虛實이라는 상대적인 觀察로서 서술하고 있으며, 臨床적인 經驗을 통하여 정리된 後天의 이고 病理적인 側面에서 論議한 體質論이라는 限界에서 理解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보면, 身體 形態 診察은 個體 特性 要因을 把握하는 가장 核心的인 診斷 項目으로서, 望診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黃帝內經』은 주로 顔面과 胴體 形態를 중심으로 개체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질의 類型化 研究를 시도하였고, 『東醫壽世保元』은 『黃帝內經』의 정신을 이어받아 胴體의 4部位別 形態 比較로서 四象體質 鑑別에 활용하였으며, 『臨證指南醫案』도 『黃帝內經』의 정신을 이어받아 全身形態 特徵, 얼굴 形態와 色을 중심으로 관찰하되, 肌肉의 堅結과 柔軟을 강조한 특성이 있으며, 『醫門棒喝』은 비록 후천적이고 병리적인 유형이지만, 類型的 구분을 시도한 특성이 있다. 또한 현대 서적인 『內經診斷學』은 『黃帝內經』의 내용을 身體 形態 特性과 診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人體體質學』은 개체성을 類型 體質적인 方向으로 研究하였고, 『中醫診斷學』은 四診法 중심으로 서술하는 입장이며, 『中醫疾病豫測學』은 개체성을 질병의 診斷과 관리 및 豫後 판단에 활용하는 資料로 삼았다. 이로 보아, 앞으로 個體性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醫史學的인 變遷 및 活用과 意義에 대하여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多病 却不甚重 亦不能受大補 大瀉 大寒 大熱之藥 但宜和平之味 緩緩調之 此大略也. 若論其變 則有陽旺陰弱之人 而損傷陽氣者 宜先扶陽 而後滋陰, 陰盛陽虛之人 而有傷陰者 宜先滋陰 而後助陽, 斯當隨時審察 不可拘執, 與後虛損論 互參其理 自可類推, 不能盡舉也.“라고 하여, 4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VII. 結 論

病證은 個人 特性 要因과 發病 因子의 결합으로 발생하며, 四診, 八綱, 辨證에서 個體 特性 要因을 잘 診斷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身體 形態上에서 人間 個體性의 要因을 研究 分析함으로써, 多少間의 意味있는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黃帝內經』의 全身形態 觀察은 類型 體質論의 인 側面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黃帝內經』에서 個體 特性 要因을 나타내는 形態 分類는 크게 두 가지로 區分되며, 陰陽說에 根據하여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的 五態人 分類와 五行說에 根據하여 木火土金水の 五類로 歸納 整理하고, 再區分하는 二十五 種類의 분류가 있다. 이 분류를 통하여, 形態 望診에서 나타난 個體性에 대한 類型化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臟六腑의 狀態를 外見으로 아는 望診은 外形의 狀態를 통하여 內부 臟腑의 特성과 차이를 알아내어 診察에서 個體 特性 要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黃帝內經』의 個體 特性 要因 診察은 心理와 身體의 統一의 論議를 통하여, 病因과 病理의 內容을 提供하고, 診斷과 治療의 根據로 삼고 있으며, 또한 個人 特性 要因의 診斷은 疾病을 豫測하고, 疾病의 傾向, 壽命, 疾病의 轉化 등을 豫測하는 근거가 된다.

東武 李濟馬의 四象類型體質 鑑別의 精神은 『黃帝內經』의 全身形態 診斷의 精神을 이어받아, 『黃帝內經』과 같은 맥락으로 個體 特性 要因을 판단하는 全身形態 診斷을 중심으로 四象類型體質의 診斷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臨證指南醫案』에서 葉桂는 個體 特性 要因에 근거한 體質의 陰陽을 區分하여 寒熱虛實의 治療, 診斷의 大法으로 삼았다. 특히 全身形態 特徵, 肌肉의 堅結과 柔軟, 얼굴 形態와 色, 皮膚色 등을

고려하여 個人 特性 要因에 근거한 體質과 病機를 파악하였다. 葉桂는 深度있는 辨證施治를 위한 體質 把握의 資料, 疾病 轉變 規則을 把握하는 資料, 正確한 用藥法으로 副作用을 最小化하는 方案 등으로 활용하고자, 病證 把握에 必須인 개체 특성 요인에 근거한 體質 區分의 項目을 증시하였다.

『醫門棒喝』에서 章楠은 論邪와 論病이 다른 이유가 邪氣가 인체에 작용하여 病이 되는 경우, 그 感受된 사람의 개체 특성 요인에 근거한 體質 요소까지 더해져서 病이 變化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個體 特性 要因인 體質 分類에서 체질이 强하면서 火가 많은 자는 陽證을 일으키고, 체질이 弱하면서 濕이 많은 자는 陰證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臨床의인 經驗을 통하여 정리된 後天의이고 病理의인 側面에서의 4가지 類型 體質論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4AA091)

參 考 文 獻

1. 강용혁. 四象心學. 서울, 대성의학사, 2010:189.
2.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2005:55, 104.
3. 김중환 김달호 율김, 章楠 著. 醫門棒喝 醫論篇. 부산, 소강출판사, 1997:17, 43, 106.
4. 동의대학교한의대 제7기졸준위 편역, 枉宏 著. 望診遵經. 서울, 도서출판 木과 土, 2000:242.
5. 류주열. 새로쓴 사상의학. 서울, 물고기숲, 2013: 52.
6. 윤길영. 동의학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사, 1983: 23, 57.
7.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서울, 한얼문고, 1973: 3, 17.
8. 이제마 原著, 홍순용, 이을호 講述.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94:36, 144, 134-139.
9. 이제마 원저, 동의학연구소 편역. 原文對譯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2002:277.
10.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81, 57-59.
11.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213-215, 274-276, 302.
12.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3:89, 183, 184.
13.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89:53.
14.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24, 183, 247.
15.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9, 28.
16.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出版社, 1983: 11, 13.
17. 葉天士著. 徐靈胎評. 臨證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65, 362, 742, 749.
18. 김경철, 신순식, 이용태. 신체 형태 관찰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19:1162-1168.
19. 김경철, 이용태, 신순식. 전신 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873-880.
20. 김경철. 영주 음양이십오인편 지인법에 나타난 인식과 사고방식의 형성요인에 대한 체질구성론적인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1237-1241.

21. 김경철, 김규곤, 강창완, 이용태, 지규용, 김종원, 이인선. 형상진단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121-139.
22. 김규곤, 이용태, 김종원, 김경철, 지규용, 이인선, 전수형, 강창완. 한방진단함수개발에서 진단정확률과 진단성공율을 이용한 전문가 수의 결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 13:2853-2865.
23. 박성식. 사상의학에서 성정의 증절과 심리치료.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26:105-120.
24. 신순식. 섭계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85.
25. 이재원.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모아레 포토그래피의 응용. *한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995;1: 273-287.
26. 黃煌. 「葉天士體質辨證探討」. 『江蘇中醫雜誌』 1980;3:3.